

가계대출 옥죄는 은행들...돈줄 막힌 서민들 '패닉'

농협 이어 우리·SC제일도 대출 제한...금리 기습인상 가능성도 광주·전남 '미소금융' 신청 급증...광주신보 지원 올 2만건 육박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일부 대출상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하반기 대출금리 기습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대출 수요는 지난해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광주·전남지역 미소금융 이용 상담 건수는 567건으로 집계됐다. 미소금융은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제도이다. 이 상담 건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광주·북광주)를 통해 집계된 수치로, 비대면 상담은 포함되지 않았

다. 올 상반기 상담 건수는 이미 지난 한 해(906건)의 62.6% 수준을 차지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미소금융 상담 건수는 전년(605건)보다 49.8%(301건)나 급증했다. 담보 또는 보증인이 없는 광주 시민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지원 건수는 올 들어 2만건에 육박했다. 올 상반기 기준 보증지원은 1만8566건(보증액 4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2만9311건(7842억원)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19년 상반기 9897건(2317억원)에 비해서는 87.6% 급증한 수치다. 광주·전남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국 평균

을 아슬아슬하게 웃돌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총 잔액은 광주 29조1137억원·전남 27조3932억원으로, 지난해 말 잔액보다 각각 3.2%, 3.6% 증가했다. 광주는 전국 평균 증가율(3.2%)을 살짝 밑돌았지만, 전남은 서울(5.4%), 대구(4.2%)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광주지역 잔액 증가율은 3.8%(18조6483억원→19조3579억원)로, 전국 평균 3.3%를 크게 웃돌았다. 전남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연말 10조6974억원에서 올 5월 10조9695억원으로 2.5%(2721억원) 늘었다. 제2금융권(비은행) 가계대출은 광주가 1.9%(9조5737억원→9조7557억원) 증가했고, 전남은 전국 평균 증가율(3.5%)을 훨씬 웃도는 4.4%(15조3735억원→16조4237억원)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SC제일은 행 등 시중은행과 일부 상호금융은 가계 대출 상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했다. 이미 우리은행은 올해 들어 분기별로 신규 전세자금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왔다. 한도가 소진되면 신규 신청은 어렵고, 기존에 승인된 대출자가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금액만큼만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간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 중 신안역 코퍼스(COFIX·자금조달비용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는 이 대출의 우대금리도 조건별로 0.2~0.3%포인트 줄인다. 최종 적용금리는 그만큼 높아진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모든 가계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불가능하다. 신용대출은 신규취급 중단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최대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또 대출자의 연봉 이내에서만 빌릴 수 있다. 농협은행에 이어 농협중앙회도 신규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신규 집단대출 승인 중단 시기는 조합에 따라 23~25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는 또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하향 비율 역시 조합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모집인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정도의 조치가 아니더라도 모든 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지하 1층 수산매장에서 금어기가 끝나고 막 잡은 꽃게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산지 직송 가을 햇꽃게 드세요

롯데백 광주점 등 판매 돌입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꽃게 금어기 해제 이후 첫 어획 물량을 산지 직송으로 22일부터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 꽃게 금어기는 지난 6월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북 부안 적포항에서 어획한 '당일바리 가을 햇꽃게'를 매장으로 직배송해 고객에게 선보인다. '당일바리'란 어획한 당일 바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수산업계에서 쓰는 표현이다. 꽃게는 흔히 가을과 봄을 제철로 본다. 가을에는 살이 꽉 찬 수꽃게가, 봄에는 산란을

앞두고 알이 꽉 찬 암꽃게가 유명하다. 가을에 잡히는 수꽃게는 월동을 앞두고 왕성한 먹이활동을 함으로써 육질이 단단하고 살이 통통해 맛이 좋다. 한편 광주 4개 롯데마트(월드컵점·수완점·점단점·상무점)도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을 햇꽃게를 판매할 예정이다. 25일까지 엘포인트 회원에게는 기존가보다 2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진도 서망항, 부안 적포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주요 꽃게 산지에 수산 상품기획자(MD)를 상주하게 해 신선한 상품을 확보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24~25일 조합원 투표

임단협 난항을 겪던 금호타이어 노사가 2021년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22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0일 오후 진행된 16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부결된 기존 합의안에 사측의 우리사주 451억원 지급 방안을 노사가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25일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51.6%가 반대,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노조는 수정된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근 노조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크릴 톱을 접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 설명회를 한 뒤 오는 24~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로또복권 (제97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9	10	14	22	44	1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69,905,911	14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7,517,648	82
3	5개 숫자일치					1,574,959	2,474
4	4개 숫자일치					50,000	125,781
5	3개 숫자일치					5,000	2,097,459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본격 분양

A-3 블록 84㎡ 902세대... 견본주택 오픈
광역도로망 진입 수월·탄탄한 인프라



중흥건설은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조감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양시 마동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록에 들어서는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전용 84㎡ 총 902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주택유형별로는 ▲84㎡ A 470세대 ▲84㎡B 420세대 ▲84㎡T 12세대 등이다. 해당 단지는 남해고속도로와 이순신대교, 2번 국도 진입이 수월하고, 중마버스터미널이 가까워 광역 교통망을 빠르게 누리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인근 포스코광양제철소와 광양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촌일반산업지 등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프리미엄이 돋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인근에 조성 중인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2025년 예정)가 대표적으로, 도보거리 초등학교와 와우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와우생태호수공원과 백운그린랜드, 마동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도 갖췄다.

이밖에 남향 위주 배치와 전세대 4베이(Bay) 구조를 중심으로 테라스 설계(일부)를 더했다. 주택형은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 84㎡ 단일 타입으로 구성됐다. 또 각종 조경시설과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피트니스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해당지역 1순위에 이어 9월1일 기타지역 1순위, 2일 2순위 청약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8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24~28일이다. 견본주택은 광양시 마동 1344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4년 10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61-795-1277.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大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정기예탁금

2.2% (2년)

2.1% (1년)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